| 현불 논단 |

# 정부, '종교편향 정치' 반성하라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그림 · 박구원

**佛-政대립, 정치권 갈등 · 분열조장 원인**
**매 정권 반복된 종교 편향 참아온 건 불교**
**政 · 與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사과' 말고**
**韓불교에 대한 역사적 채무부터 성찰하라**

국가와 승가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생겼다. 국가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정부 여당이다. 정부는 행정책임을, 집권여당은 입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다수당이므로 정부와 여당은 국정의 실질적 주체다. 국정의 책임 주체와 전통종교의 대표인 불교계가 맞부딪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정과 균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국민은 위임했던 주권을 회수할 수 있다. 국민주권의 강력한 힘은 선거권이다. 투표를 통해 새로운 주체에게 주권을 위임하면 된다. 승가는 불교의 수행자 집단이지만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며 국민을 이루는 여러 주체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명백하다. 승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며 주권자인 동시에 유권자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종교편향 행태며 불교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폄훼가 지속되어도 국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고 양보해 온 세월이 수십 년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불교계는 정치에 의한 '차별 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 공적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든 기회는 교세의 쇠락으로 이어지면서 공공 영향력도 미미해진다.

승가가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여 오염시킨다고 비난한다. 이런 세력은 불교계 내부에도 있고 이웃종교에도 있으며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들에게 불교와 승가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대해야 하는 국가의 주체가 아니라 배제와 무시의 대상이기 쉽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현 정권의 사례만 손꼽아도 부지기수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 방치,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가치에 대한 보상 외면, 종교의 중립을 위반하는 캐럴 캠페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가톨릭 편향, 경기도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 순례길 추진, 국 · 공립합창단 특정 종교 찬양 일색 공연,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는 여당 국회의원의 불교폄훼 발언 등….

전국승려대회는 그래서 열렸다. 결사나 야단법석 같은 전통적인 불교 어법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조계사에 모여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천명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위험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승가의 단합된 의지는 결연했다. 동안거 기간인 데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긴장감이 더욱 감돌았다. 스님들은 안거라는 승가 내부의 전통보다 종교편향이라는 국가의 불공정한 태도에 대한 대응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승만 정권 이래 역대 정권들의 종교편향 움직임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고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불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탐욕으로 종교의 순수성을 오염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다른 누군가에겐 '봉이 김선달 통행세'가 된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도 비난하는 자의 눈에는 '걷기쇼'로 보인다. 승려대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면 일부 진영주의자들은 승려대회를 '정치 쇼'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다. 본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게 프레임이다. 정부나 정치권의 프레임주의자들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다.

결론은 세 방향이다. 사과하거나, 봉합하거나, 내부분열 유도를 통한 특정인물에 대한 타깃 공격이다. 라스트신 예측은 싱겁다. 성난 불심을 달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지 않은가. 정부 여당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선거를 앞둔 급한 불끄기라고 생각한다. 진정성을 교감하지 못한다.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편향 정책이 버젓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인재들이 공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포진하지 못한 점, 종교와 정치의 분리 관습에 따른 소극적 대응, 종교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재창출하는 불교계 내부의 방법론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는 동안 이웃종교는 우리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교육과 의료로 국가 콘텐츠의 주요 부분을 선점하고 인재를 길러 공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포진시켰다. 정치권력과 교단의 정치화가 선교를 통해 우리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 힘의 눈덩이가 관습적으로 계속 굴러가는 형국이다. 포교와 전교에 치열하지 않으면 불교는 조만간 선방의 앉은자리에서 사라지게 된다.

오늘의 승가는 역사적 승가다. 이들은 부처님의 정신생명을 공유하는 역사적 기억의 집적체이며, 1700년간 주인공의 자리에서 우리문화의 꽃을 피워 왔다.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 당시 입만 앞세우는 관료들이나 도망친 정치의 수장 대신 국가를 구하는 데 일조한 주체는 우리의 스님들이었다. 승가가 국가를 살렸다. 오늘날은 국가가 승가를 살리려 않는다.

한국의 승가는 조선왕조 5백년간 억압 받아온 고난의 역사주체기도 하다.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를 키우지 못한 비원과 통한이 역사적으로 내재돼 있어도 정부나 이웃종교를 탓하는 대신 내부의 결사를 통해 자성하고 쇄신하고자 했다.

내부개혁도 쉽지만은 않은데 외부의 도전 환경이 엄혹해지면 어찌해야 하는가. 전국승려대회는 역사적 승가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편향된 종교정책이 지속되면 인프라가 무너지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편향과 불공정은 저항을 불러온다. 승가의 저항은 고난의 역사주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기갱생 운동이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동시에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왜 아니겠는가.

공존공영의 가치를 훼손하는 종교편향 정치는 반성하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사과를 할 게 아니라 한국불교에 대한 역사적 채무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무를 직시하라. 성찰과 직시를 소홀히 하는 정치는 유권자에게서 멀어진다.

정부 여당은 어찌할 것인가. 공정과 균형의 법도를 지켜 정치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 본지환처(本地還處)는 모두의 마음자리에 있다.

## 社 說

# 전국승려대회에 부쳐

**정권마다 이뤄진 종교편향에 내린 준엄한 경책**
**차별금지법 제정 · 종교 감수성 확산 등 힘써야**

전국 5000여 스님들이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에 운집했다. 동안거라는 수행기간에도 불구하고 봉암사 수좌 스님들을 비롯해 전국의 수좌 스님들이 서울로 상경했고, 전국 각지 스님들이 서울 조계사로 모였다. 이렇게 모인 5000여 스님은 종교편향과 불교왜곡을 경책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불교 외호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자행돼 온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 폄훼에 대한 스님들의 준엄한 경책이었다.

실제,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행사에서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할 정부가 앞장서 종교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의 결집은 차별적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임을 분명히 했다.

혹자는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날의 승려대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힐난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불교가 대규모 승려대회를 열었어야 하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불교계는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통행세를 받는 산적' '봉이 김선달'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든 원인은 모두 국가에 있다. 박정희 정권은 불교계와 아무 상의없이 사찰과 소유 토지를 모두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의 비방에도 불교계는 공익을 위해 묵빈대처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과를 요구한 불교계에 "댓글을 보니 정청래가 맞다고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응수했다. 현재까지도 그가 행한 모든 사과가 어떠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청래 의원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던 와중임에도 정부는 개신교와 가톨릭과 함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 정부가 자랑해 마지 않는 K-방역의 선봉에는 국민과 불교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다. 개신교계에서 집단감염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확진자 '0'을 기록하며 청정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조롱이었다. 모든 정황이 쌓여왔던 종교편향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분수처럼 터져 나온 계기가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불교계에 사과의 제스쳐를 제시했다. 승려대회 당일에도 황희 문화체육부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았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대회장에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 발언의 기저에는 "종교편향의 의도가 없었다"와 "잘 몰랐다"가 전제되며, 이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재한다. '한없이 낮은 종교 감수성'과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몰이해'다.

그래서 불교계는 승려대회 이후 두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고삐를 조여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뿐만 아니라 사회에 내재된 편향도 바로잡고 대사회적인 종교 감수성 확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다종교사회다. 종교평화는 곧 사회 안정과 평화와 직결됨을 알아야 한다. 불교의 승려대회는 이를 위한 첫 걸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